野 '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단독 처리

농해수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조치 담아
민주 "정부, 해양 투기 소극 대응"
국힘 "기습동의 반칙" 반발 퇴장

야당은 2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간 이견이 있는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다.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촉구 외에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고,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당초 이날 논의가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이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하면서 안건으로 올랐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결의안을) 볼 시간을 주고 해야지, 현안 질문을 하다 불쑥 내지르면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발했고, 같은 당 홍문표 의원도 "긴급동의를 받아 기습적으로 끼워 넣는 것은 상식적인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 하는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국민들은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면서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해 모두 퇴장했다.

결의안 의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횟집 먹방을 한다"면서 "횟집 먹방을 할 것이라면 후쿠시마 가서 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현 정부의) 여러 절차들이 전 정부와 다를 게 없는데, 우리가 일본의 대변인이라면 원조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원내대책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각 임박…여야 '인사청문회' 전운 고조

이번주 방통위원장 지명
통일부·산자부도 후임 거론
총선 앞 주도권 다툼 예고

정부의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앞두고 여야 간 인사청문회 격돌이 예상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지어 열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금주 후반 공석인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MB)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현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한 상황이다.

아울러 통일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에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후임 통일부 장관으로는 현 정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산업부 장관 후임으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각각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지명과 소폭 개각이 단행되면 국회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구성에 이어 '인사청문회 2라운드'가 펼쳐지게 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9개월여 남긴 시점인 만큼 여야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각 후보자가 국정과제 수행의 적임자라며 '철벽 엄호'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미 일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여야가 맞붙을 최대 격전지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은 이동관 특보에 대해 과거 '언론장악' 논란,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을 최대한 부각함으로써 그가 '부적격' 인사임을 입증하는 데 역량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언론 장악 이력으로 볼 때 현 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사"라며 "아들 학폭 의혹도 문제지만 언론관 하나만 놓고 봐도 부적격 인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방송 정책의 적임자'라며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합의에 따라 최근 민주당 정청래 의원에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으로 바뀐 것도 여당의 엄호 전략에 유리한 요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MBC, KBS 사장을 쫓아내고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며 "언론장악은 민주당이나 일부 좌파 언론의 프레임이다"고 주장했다.

교체설이 유력한 산업부·통일부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후임으로 거론되는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 업무 역량 등을 철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달 둘째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안에 잠정 합의하고, 향후 일정 등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총 13인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간사), 김승수, 김형동, 장동혁, 최형두 의원이 민주당에선 박주민(간사), 강민정, 김회재, 김병욱, 민형배, 최기상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몫으론 정의당에서 이날 의원총회에서 1명을 선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윤 대통령이 제청한 인선인 만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 법안 발의

김승남 의원 "기념사업 국가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7일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이순신 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지원하는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순신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특별법 발의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한다면, 23전 23승 승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애민사상과 자기희생으로 빛나는 이순신정신을 계승하는 매우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이순신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영진, 민병덕, 이용빈,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65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2명 등 총 69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이순신특별법은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이순신해라는 명칭을 법적 근거를 갖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순신특별법은 현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이순신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만들고, 기본계획을 세워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자체에 흩어진 이순신기념사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된다.

김승남 의원은 "이순신특별법이 통과되면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함으로써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일본에 맞서 대한민국 영해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월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2,650㎡ (801평)
- 경관 아주 좋음. 별장형 빌라, 숙박시설 등 적합
- 본땅 2,346㎡(710평). 도로 포함 801평. 매도 7억5천만원

무안군 운남면 내리 3,940㎡ (1,191평)
- 공시가 45백 527천원 전원생활적합. 1억1,900만원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접 땅 4,650㎡ (1,406평)
-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동면 장동리 (776평)
- 조용한 생활적합. 7,2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5,500 (평당 10,778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주목성 뛰어나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화질 LED풀칼라 최고화질

1.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2.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 아시아문화전당 앞 충장로 입구 공연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3. 높은 광고효과
-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4.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5. LED전광판의 특징
-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